서울국제마라톤, 'IAAF 문화유산' 선정 |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의 90년 걸어온 길

1931년 3월 21일
제1회 마라손 경주회(고려육상경기회 주최, 동아일보 조선체육회 후원). 서울~영등포간 14마일 반(23.2km) 코스에서 개최

1939년 3월 19일
제10회 대회는 동아일보사 인수해주최. 광화문~의주통~서대문사거리~봉래교~한강 교~남 경성역전광장 코스로 변경

1941~1953년
일제의 언론탄압과 전쟁으로 14년간 중단

1954년 4월 18일
47년, 50년 보스턴대회 제패 기념 경영간 단축마라톤으로 부활. 서울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

1979년
여자부, 남자고교 10km 신설해 문기숙과 정만화 우승

1980년
국내 최초의 여자 30km부문에서 2시간02분08초로 임은주(조폐공사) 우승

1984년
이홍렬(경희대) 마의 15분 벽을 무너뜨리며 2시간14분59초로 우승

1990년
김완기(코오롱) 2시간11분34초로 한국최고기록 작성

1994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 겸 제65회 동아마라톤대회로 대회명칭 변경. 김완기(코오롱) 2시간08분 34초로 한국최고기록 작성

1995년
이봉주(코오롱) 2시간 10분 58초로 우승. 마스터스 풀코스 부문 162명 참가

2000년 3월 19일
동아일보 창간 80주년을 기념해 서울로 코스 변경. 3년만에 국제대회 부활

2002년 3월 17일
월드컵 성공 기원 본선 진출국 32개국 대표 마라토너 참가. 동아서울국제마라톤, 한국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일본 TV아사히, 중국 CCTV 등 외국 방송사가 방송

2009년 3월 15일
동아마라톤대회 80회 기념 인터내셔널 프렌드십 런 시행, 국제육상연맹(IAAF)이 인증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승격

2010년 3월 21일
첫 국제육상연맹(IAAF) 골드라벨 대회에서 실베스터 테이멧(케냐)이 2시간6분대 기록으로 우승

2015년 3월 15일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케냐)가 2시간6분11초로 우승. 마스터스 10Km 부문(서울챌린지 10K) 신설

2016년 3월 20일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케냐)가 2시간5분13초의 국내마라톤 최고기록으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

2018년 3월 18일
김도연(K-water)이 2시간25분41초로 21년만에 여자 한국마라톤 최고기록 경신

2019년 3월 17일
역대 최다 3만8500명 참가

보스턴마라톤과 어깨 나란히… 역시 명품!

〈미국〉

올해 90회째…국내 유일 골드라벨
마스터즈 선수들 꼭 뛰고싶은 무대
국제무대서 명품 대회 클래스 인정
내년 사상 첫 4만명 시대 플랜 준비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대회는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최고의 상품이다. 전 세계 특급 마라토너들뿐 아니라 마스터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 대회는 매년 3월 서울 일원(광화문광장~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올해는 역대 최다인 3만8500여명이 참여해 가치를 높였다. 2017년과 지난해에도 3만8000여명의 건각들이 힘차게 서울 도심을 누볐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국제마라톤이 또 한 번의 도약 찬스를 맞이했다. 국제육상연맹(IAAF)은 10일 "서울국제마라톤이 (풀코스 기준으로) 아시아 최초 IAAF 문화유산에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1931년 출발해 올해로 90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마라톤은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IAAF는 2008년부터 지구촌 주요 마라톤대회를 출전선수, 기록, 코스, 참가자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3등급(골드·실버·브론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서울국제마라톤은 2010년 골드라벨 인증을 받았다. 특히 공인 라벨을 받은 국내 대회는 서울국제마라톤과 대구국제마라톤(실버 등급) 뿐이라 의미를 더한다.

다만 골드라벨 대회가 지난해 기준 56개까지 늘어 IAAF는 2020년부터 '플래티넘 라벨'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는데 서울국제마라톤은 동아일보 창사 100주년을 기념해 치러질 내년 등급 조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왔다. 미국 보스턴, 그리스 아테네 대회와 나란히 IAAF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등급 상향조정 노력에 한층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최적화된 코스로 수많은 기록을 써 내려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마라톤 대회답게 서울국제마라톤은 마스터즈 참가자들에게도 '꼭 뛰고 싶은' 무대로 정평이 났다. 풀코스를 2시간59분59초 이내에 완주하면 '동아마라톤 마스터스 명예의 전당'에 입회 자격을 부여하고, 상위 입상자에게는 국제대회 참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 식구가 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의 지원을 받아 11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뉴욕시티마라톤에 참가하는 행운을 부여했다.

내년 대회를 기점으로 '4만 명 참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계획을 세운 서울국제마라톤은 IAAF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제무대 속에 한층 매력적인 마라톤대회로 계속 명성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어벤져스4, 1250만 돌파 이번 주말 아바타 넘는다

역대 외화 최고 흥행 기록 카운트다운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125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역대 흥행 10위권에 안착했다. 역대 외화 최고 흥행작인 '아바타'의 1333만여 명 동원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은 11일 전국 1687개 스크린에서 35만4000여 명을 불러 들여 누적 1250만8000여 관객을 모았다. 한국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명)를 제치고 역대 흥행 10위에 올랐다.

'걸캅스' '나의 특별한 형제' 등 한국영화 경쟁작의 공세 속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어벤져스4'는 이날 오후 3시 현재에도 50%에 육박하는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요일인 이날 하루 30만여 관객이 관람할 것으로 추산되며 누적 1300만 명 돌파도 눈앞에 뒀다. 이에 '아바타'의 역대 외화 최고 흥행 기록을 무난히 경신할 전망이다.

다만 개봉 3주차에 접어들면서 평일 10만~12만여 관객에 그치고 있어 다소 힘이 달리는 분위기다. 또 15일 '배심원들' 등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아바타'의 기록을 깨는 시점이 언제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장가는 이번 주말경 '어벤져스4'가 역대 외화 최고 흥행작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FC서울 베테랑 스트라이커 박주영(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전에서 종료 직전 2-1 승리를 확정짓는 프리킥 결승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봄 지휘하는 '베테랑 박주영의 힘'

대구전 동점골 박주영 프리킥서 시작
종료전 예리한 결승골…적장도 엄지척
현재 3골·2도움 "이젠 90분 체력 완성"

세월이 흘러도 클래스는 변치 않는 법이다. K리그1 '전통의 명가' FC서울에게는 베테랑 스트라이커 박주영이 그런 존재다. 미디어 노출을 즐기지 않아 이런저런 오해를 사기도했지만 적어도 올 시즌 초반부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지난해 극심한 부진 속에 하위권에 머물며 K리그2 강등위기를 경험했던 서울은 완벽한 변신에 성공했다. 최용수 감독은 "아직 멀었다"고 자세를 낮추지만 서울은 예전의 위용을 되찾았다. 중심에 박주영이 있다.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11라운드 홈경기는 박주영의 존재가 새삼 확인된 무대였다. 서울의 2-1 역전승을 일군 득점이 전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전반 12분 첫 골을 먼저 내준 서울은 2분 뒤 동점을 만들었다.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박주영이 프리킥으로 띄운 볼이 정확히 황현수의 머리를 향해 배달됐다.

팽팽한 1-1 균형 속에 경기종료 7분여를 남기고 박주영은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오른발로 감아 차 골네트를 흔들었다. 대구가 자랑하는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이었다. 전반에만 옐로카드 4장이 주어지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대구 안드레 감독도 박주영의 활약에는 주저 없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올 시즌 박주영이 팀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난 수원 삼성과 10라운드 슈퍼매치(1-1)에서도 역시 빛을 발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0-1로 뒤진 후반 45분 어렵게 얻은 페널티킥(PK)을 실축한 박주영은 후반 추가시간 또 다시 얻은 PK에 재도전, 동점을 만들었다.

앞서 PK를 실패했던 선수가 다시 킥을 차는 장면도 드물지만 서울 벤치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그것도 실축 때와 똑같은 위치로 공을 보내는 강심장을 뽐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서인지 대구전에서 박주영의 킥 감각은 눈부셨다.

박주영은 현재까지 K리그에서 3골·2도움을 올렸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PO)를 포함해 4골·1도움에 그친 그는 이미 공격 포인트 횟수(5개)에서 타이를 이뤘다. 정규리그 득점수는 똑같다.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 프리시즌 훈련을 소화한 결과다. 부상 후유증도 없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당분간 현재 페이스가 이어질 것으로 서울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만족하지 않는다. "베테랑답게 항상 모범적이다. 책임감이 남다르다.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 같다"는 스승의 격려에 "90분 체력이 됐다.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언제든 몸을 준비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남장현 기자

Lotto 6/45 858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5월 11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9	13	32	38	39	43	23

1등 총 당첨금 19,821,127,131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9	2,202,347,45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41	80,573,688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075	1,592,05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06,176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789,295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